

대학별 고사 유형	전형명	계열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 불입 번호		
면접 구술 고사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전자공학부, 전자공학부 (인공지능전공)	2	1-3	수학	○	30		
				2-1(1)					
				2-1(2)					
				2-2					
			3		3-1	물리	○	31	
					3-2				
					3-3				
					3-4				
			4		4-1	물리	○	32	
					4-2				
					4-3				
					4-4				
		컴퓨터학부, 컴퓨터학부 글로벌소프트웨어 융합전공	1	1-1	1-1	확률과 통계	○	33	
					2	2-1	수학1	○	34
					3	3-1	확률과 통계	○	35
		체 육 학 과	1	1-1	1-1	체육	○	36	
1-2									
소 프 트 웨 어 학 과	1	1-1	1-1	확률과 통계	○	37			
			2	2-1	수학1	○	38		
			3	3-1	미적분	○	39		

부록 3 | 문항카드(인문·사회계열)

[문항카드 1]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국어,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공감, 타자 이해, 공동체, 문학의 가치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감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덕목으로 많이 강조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공감은 타인의 정서적 상태와의 일치 혹은 타인의 경험과 처지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공감의 문제는 규범적으로만 읽히거나 아름다운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때때로 공감은 동정으로 둔갑하거나 위선이나 감상주의에 머물기도 한다. 자신의 이해와 상관없다는 무관심, 자신의 특권에 대한 무의식 등 공감을 실천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은 많다. 특히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고통과 억압에 대한 타자의 감정적 반응까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한 공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설픈 감정이입이나 동일시만을 무조건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감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렵고 왜 불완전한가를 인식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감의 덕목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사회적 실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타자가 겪는 억압과 차별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자신이 지닌 특권과 안전함이 그러한 억압과 차별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는 과정은 공감을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나)

테두리에서 빛이 나는 사람
꽃에서도 테두리를 보고
달에서도 테두리를 보는 사람

자신의 줄무늬를
슬퍼하는 기린처럼
모든 ㉠ 테두리는 슬프겠지

슬퍼하는 상처가 있어야
 위로의 노래도 사람에게로 내려올
 ㉠ 통로를 알겠지

박형준, <태두리> 중에서

(다) [앞부분 줄거리] 그와 아내는 새로 마련한 집을 보수하느라 제법 많은 돈을 들이게 된다. 그러던 중 육식 바닥에서 물이 새는 일이 생기자 이웃의 소개를 받아 임 씨에게 공사를 맡긴다. 그러나 곧 그는 임 씨의 본업이 연탄 배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육식 공사를 맡긴 것을 후회한다. 임 씨가 일을 꼼꼼히 하자 비로소 안심하지만, 이번에는 임 씨가 수리비를 많이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그러나 임 씨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임 씨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임을 알게 된다. 임 씨는 서비스로 옥상 공사까지 해주고 견적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을 청구하여 부부를 깜짝 놀라게 한다.

“가리봉동에 가면 공국이 나와요?”

임 씨가 따라 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 씨의 말이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공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기도 나오고 우리 농구 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빠마값도 썩 빠집니다요. 자 그마치 팔십만 원이요, 팔십만 원. 제기랄, 슈타 공장 하던 농한테 일 년 내 연탄을 대 줬더니 이놈이 연탄값 떼어먹고 아반도주했어요. 공장이 망했다고 업살을 까길래, 내 마음인들 좋았겠소. 근대 형씨. 아,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뭐니까.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야 제껴덕 들어오지, 뭐.”

“그럼 받아야지, 암. 받아야 하구말구.”

그는 딸꾹질을 시작했다. 임 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정처 없이 흔들렸다. 그에 비하면 임 씨의 기세 좋은 입만 큼은 아직 든든하다.

“누군 받기 싫어 못 받수. 쥐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요.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이네. 여공들 노임도 밀렸다. 부도가 나서 그거 메우느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지가 먼저 성깔 내.”

“적일 놈.”

그는 스웨터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 본다. 반질반질한 상판에 배는 푹 불거져 나왔겠지.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여름에 비가 오죽 많았소.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지요. 비만 오면 갔던 말이요.”

“아따, 일 년 삼백육십오 일 비 오는 날은 빼고 썼는데 머시 그리 걱정이당가요?”

김 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오며 임 씨를 돌려 먹었다.

“시끄러, 임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그는 임 씨의 뒷발 선 눈을 마주보지 못하였다.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 속이는 일꾼이라고 종일토록 의심하며 손해 볼까 두려워 궁리를 거듭하던 꼴을 눈치채이지는 않았는지, 아무래도 술기운이 확 달아나버리는 느낌이었다. (중략)

“어떤 놈은 몇어십 췌겨 먹고 어떤 놈은 한 달 내내 뼈품을 팔아도 이십만 원 벌이가 달랑달랑한데, 외제 자가용 타고 다니며 꺼덕거리는 놈은 무슨 재주로 그리 사는 거야? 죽일 놈들. 죽여! 죽여!”

임 씨의 입에 거품이 물렸다.

“비싼 술 잡숫고 왜 이런당가요, 참으시오. 임 씨 아저씨, 쪼매 참으시오.”

김 반장이 냉큼 달려들어 빈 술병과 잔들을 췌겨 갔다. 임 씨는 탁자에 고개를 처박고서 연신 ‘죽여’를 되뇌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사내의 빛바랜 얼굴만 쳐다보았다. ㉡ 아무리 생각해도 저 ‘죽일 놈들’ 속에는 그 자신도 섞여 있는 게 아니냐는, 어쩔 수 없는 괴리감이 사내의 어깨에 손을 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중에서

1-1. ㉠이 ㉡이 될 수 있는 이유를 (가)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1-2. ㉡은 공감에 이르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를 (가)의 주장을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135자 이내) [30점]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공감을 사회적 실천의 문제로 이해하는 관점을 주목하고, 문학작품에 나타난 공감의 양상과 가능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문학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과정은 타인의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이해하며, 이들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활동은 그 자체가 공감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공감이 정서적 합일이나 무조건적인 동일시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억압을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이해하고, 이를 함께 제거하려는 사회적 실천의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문학과 현실과의 관계, 문학이 지닌 실천적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 문항을 통해 학생들은 문학작품을 통해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이며, 공감이 우리 사회에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가), (나) 문제1-1, 1-2
	성취기준 2	[12문학04-02]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가), (다) 문제1-1, 1-2
	2.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제시문(가), (나) 문제 1-2	
성취기준 2	[10국05-05] 주제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가), (나) 문제 1-1, 1-2	

3. 사회	
	과목명: 사회
성취기준 1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관련 제시문 (나) 문제 1-2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19	40~41	제시문(다)	○
고등학교 문학	정호웅 외	천재교육	2019	53-64	제시문(다)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원미동 사람들	양귀자	살림	2011	137~171	제시문(다)	○
줄무늬를 슬퍼하는 기린처럼	박형준	창비	2020	134~135	제시문(나)	○
공감, 정체성, 탈동일시(Disidentification)	김미덕	사회와 철학연구회	2013	317~354	제시문(가)	○
타자 이해를 위한 공감의 플랫폼 읽기	류동규	국어교육연구 71	2019	237~272	문제 1-2	○
공감(empathy)의 시학	황치복	서정시학 25권 3호	2015	245~258	문제 1-1	○

5. 문항 해설

【1-1】 (나)는 박형준 시인의 <테두리>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테두리를 가장자리와 한계, 그들과 연결하며 자신의 줄무늬를 슬퍼하는 기린처럼 슬프다고 하였다. 즉 '테두리'는 슬픔이나 상처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데 화자는 이러한 상처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가)의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과 억압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테두리는 슬픈 상처이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1-2】 (다)는 양귀자 소설가의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이다. 이 작품은 『원미동 사람들』의 연장 중 한 편으로, 소설 속 화자인 '그'가 원미동 연립 주택으로 이사 온 후,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만난 '임 씨'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과정을 담은 소설이다. 인용된 부분은 임 씨가 평소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부분인데, 같이 술을 마시며 임 씨의 처지를 이해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임 씨와의 괴리감을 느끼고 그의 어깨에 손을 대지 못하는 장면이다. (가)는 공감의 의미를 감정이입이나 동일시로 보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공감이 왜 어려운가를 새롭게 인식하고, 공감을 사회적 실천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다. 공감의 과정이 타인 이해를 통한 자기 이해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 사회 문제 해결을 위

한 실천적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은 경청할 만한 주장이다.

(가)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 부분을 보면, 그가 느낀 괴리감과 손을 대지 못하는 행위는 오히려 임 씨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공감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환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임 씨가 부르짖는 '죽여!'의 대상 속에 자신이 속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과정은 임 씨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임 씨의 어려움이 그의 개인적 성품이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차원에서 실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할 수 있다. 이는 어쉴픈 감정이입이나 동일시가 아닌 공감의 어려움과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사회적 실천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가)에서 주장하는 진정한 공감이 이르는 과정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① ① 테두리는 슬픔(슬픈 상처)을 지닌 존재이다. ② 어려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고통과 억압으로 인한 타자의 슬픔을 충분히 공감할 수 없다. ③ 타인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감의) ④ 통로가 될 수 있다. (1) 3가지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 : 20점 (2) ②의 내용만 쓴 경우 15점 (3) ①과 ③이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②가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은 경우 10점 (4) 문장이 어색하거나 단어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3-5점 감점	20
1-2	① 임 씨에 대한 자신의 공감이 불완전하다는 것(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 ② 자신의 특권과 안전함이 임 씨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적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과정 (1) ①과 ② 모두 (가)의 주장을 바탕으로 잘 설명한 경우 : 30점 (2) ①과 ② 중 하나만 설명한 경우 : 각 20점 (3) (가)주장을 중심으로 쓰지 않고 소설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 온 경우 : 오답 처리 (4) 문장이 어색하거나 단어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3-5점 감점	30

7. 예시 답안

【1-1】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타자의 슬픔을 충분히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픈 상처와 관련한 테두리는 오히려 타자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1-2】 ㉠은 그가 임 씨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인식하는 과정이며, 자신이 지닌 특권과 안전함이 임 씨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문항카드 2]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불평등, 사회적 약자, 장애인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애를 판정하는 오랜 방식 중 하나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의료진이 객관적으로 기능 손상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다. 누가 장애인이며, 장애가 어느 정도 심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복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근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만약 어느 정도의 시력 손상이 장애인지, 그리고 그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주관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지 혜택을 받기 원할 것이다. 그렇기에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장애 범주와 진단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나) 1976년 영국의 장애인 단체 '분리에 저항하는 신체장애인 연합'은 "손상을 입은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손상이 아니라 사회"라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의 영향을 받아 세계보건기구는 2001년 장애 개념을 손상 중심 접근에서 사회적 어려움과 불이익을 중시하는 접근으로 바꾸었다. 이는 나아가 여러 나라가 함께 사용하는 국제적인 장애분류체계에 사회적 불이익의 수준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어장애의 경우 과거에는 많은 나라가 음성 발화 기능의 손상 수준에 따라 장애를 판단하였지만, 이후 실제로 개인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의 정도를 중심으로 장애를 규정하는 나라가 늘게 되었다. 예컨대 아랍어만 사용하는 시리아 난민이 스위스에 이주할 경우, 이들은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관점은 실제로도 장애인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비로소 장애인은 삶을 가로막는 모든 사회적 장벽의 철폐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TV를 볼 때 겪는 어려움은 자신의 청각 기능 이상 때문이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으로 방송이 송출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직업이 없는 장애인 역시 사회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는 물론 적절한 교육 훈련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장애인의 어려움은 신체적 기능의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에만 기인한다는 믿음은 사회적 장벽의 철폐를 통해 완전한 장애 해방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예를 들어 도로의 턱을 모두 없애고 모든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등 이동환경을 개선하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지체장애인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사회환경은 이들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이 오롯이 사회환경에 기인한다는 생각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환경의 변화란 불가능에 가깝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을 위

해 도로의 턱을 없애면 시각장애인은 인도와 차도의 경계를 알기 어려워 차도에 들어갈 위험이 증가한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점자 블록을 만들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요철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 이렇듯 손상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장벽은 다를 수 있다. 그나마 일명 '무장애 환경'은 도시에서만 구현할 수 있다. 도시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은 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다고 자연을 한없이 훼손하며 도시를 만들 수도 없다. 또한 손상 그 자체도 고통을 유발한다. 장기간 휠체어 생활을 하는 지체장애인의 척추 뒤틀림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거나, 심할 경우 다른 손상으로 이어진다. 즉, 장애인의 어려움은 사회적 조건에만 기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의 손상으로만 바라볼 수도 없다. 게다가 손상 그 자체가 무의미하지도 않다. 장애 문제는 개인의 손상과 사회적 조건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발생하는 것이며, 손상 그 자체 역시 사회적 장벽 못지않게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2-1] (가)와 (나)의 내용을 근거로 <보기>의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20점]

<보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비슷한 건설직 종사자 갑과 사무직 종사자 을은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갑은 한쪽 다리, 을은 양쪽 다리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었다. 목발을 사용하게 된 갑은 건설 일을 할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었고, 휠체어를 이용하게 된 을은 복직하여 이전처럼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에 따르면 두 사람 중 (㉠)의 장애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가) 더 크기 때문이다. (나)에 따르면 두 사람 중 (㉢)의 장애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가) 더 크기 때문이다.

[2-2] <보기>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나)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우리는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버스와 택시를 타고 싶고,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장애인의 외침은 새해에도 이어졌다. 장애인 단체들은 2022년 1월 3일 오후 지하철 □역 승강장에서 정부에 '장애인 이동권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위에 참가한 장애인 100여 명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정부는 장애인 이동권 예산 보장하라.", "대중교통 접근권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시위에 참가한 K씨는 "우리는 지하철을 잠깐 멈춰서라도 우리 권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라며 "지하철은 잠깐 연착됐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아예 멈춰 섰다."라고 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20년째 이동권 투쟁을 하고 있다. 이날 장애인들의 승차차 시위로 열차가 멈춘 시간은 평균 1분 20초 남짓이었다.

[2-3] (다)를 바탕으로 <보기>의 주장을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비행기와 잘 갖춰진 활주로만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 날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듯, 걸을 수 없는 장애인 역시 휠체어와 잘 갖춰진 도로 환경만 마련되면 보행 기능 손상은 사회 참여에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는다.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의료모델, 사회모델, 비판관점 등에 따라 손상과 사회적 조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독해를 통해 이해하고, 그 관점을 실제 사회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리적 추론의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불평등 등에 관한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며, 최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시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방안을 탐색한다. [12사탐05-03]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발생 원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토의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장애학의 쟁점: 영국 사회모델의 의미와 한계	톰 셰익스피어	학지사	2013	28-58	(나), (다) 2-3 <보기>	○
신문기사		경향신문	2022		2-2 <보기>	○

5. 문항 해설

[2-1] 가) 제시문은 개인의 손상 수준에 따라 객관적인 의학적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장애를 판정하는 것이 복지 재원을 분배할 때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료모델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고, (나)는 개인의 손상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이나 사회참여의 장벽 등과 같은 사회적 조건이 장애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는 사회모델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가)와 (나)의 입장을 각각 이해하고, <보기>에서 손상 수준이 각각 다르고, 동시에 갑과 을의 직업상황(사회적 조건)이 달라 발생한 사회적 불리가 서로 다를 때 (가)와 (나)의 관점에서 장애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2-2] <보기>는 실제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였던 장애인단체 이동권 관련 시위 관련 신문 기사를 일부 재구성한 내용이다. (나)의 입장은 개인 손상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제약하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이 장애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나)의 입장을 독해를 통해 이해하고,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

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2-3] (다)는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모델이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모든 사회적 장벽을 철폐하여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려우며, 또한 손상 그 자체도 장애인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비판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보기>는 장애 사회모델의 입장에 선 대표적 장애학자인 마이클 올리버(Michael Oliver)의 주장 “비행기가 날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이동 보조 수단인 것처럼, 휠체어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이동 보조 수단일 뿐이다.”에 대하여 톰 셰익스피어(Tom Shakespeare)가 실제 비판한 바 있기도 하다. ‘날지 못함’과 ‘걷지 못함’, ‘비행기와 활주로’, ‘휠체어와 도로환경’을 각각 대비하며 손상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의도로 마이클 올리버는 말했지만, 사실 ‘날지 못함’은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걷지 못함’과 다르다. (다)의 입장을 토대로 (1)현실에서 무장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2)손상 그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음을 이해하였는지 묻는 문제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기능 손상(수준), ㉢갑, ㉣사회적 어려움(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를 모두 갑, 혹은 모두 을로 썼을 경우: -10점 - ㉠, ㉡를 모두 기능 손상, 혹은 모두 사회적 어려움(불리)라고 썼을 경우: -10 - ㉢를 손상, 피해 등이라고 썼을 경우 3점 감점 - ㉣를 사회적 장벽이라고 썼을 경우 2점 감점 - 오답 예: ㉢개인의 심한 정도 	2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체기능 손상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10점 ② 장애인의 사회참여 장벽 요소가 기술되어 있으면 10점 - ①, ②의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작성되면 만점 부여. - ②에서 “사회가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등의 내용일 경우 3점 감점 - 각 평가 요소 별로 내용 구성 완성수준 등을 고려해 1-3점 감점. 	2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환경이 개선되더라도 무장애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내용 / 혹은 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적 기능 손상과 사회적 조건의 조합에 의하여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 둘 중 하나가 기술되어 있으면 10점 인정. (점수인정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은 자신의 걷지 못하는 능력의 제한과 사회적 장벽이라는 조건의 조합에 의해 이동제한을 겪으나, 사람이 날지 못하는 것은 손상과 무관하다. (점수 인정) - 장애인은 자신의 걷지 못하는 능력의 제한과 사회적 장벽이라는 조건의 조합에 의해 이동제한을 겪으나, 사람이 날지 못하는 것은 손상과 무관하며, 사회환경을 개선하더라도 무장애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점수 인정) (감점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을 훼손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5점 감점 -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만족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혹은 불가능에 가깝다). : 3점 감점 - 도시에서만 무장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3점 감점 ② 사회환경이 개선되더라도 손상 그 자체가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10점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장애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나)의 지문을 그대로 옮겨 썼을 경우 5점 감점. <p>*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20점 만점. 각 항목별로 의미가 부족할 경우 2-3점 감점. * 각 평가요소 별로 일부 문장을 (나)에서 그대로 옮겨 쓰면 각 요소 별로 5점 감점.</p>	20

	(감점 예) - 보기의 주장은 장애 문제가 개인 손상과 사회적 조건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5점)
--	---

7. 예시 답안

[2-1]

㉠을, ㉡(신체적) 기능 손상(수준), ㉢갑, ㉣사회적 어려움(불리)

[2-2]

시위 참여 장애인들은 자신의 신체기능 손상 때문이 아니라 대중교통 접근권 미보장 등과 같은 사회 참여 장벽이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78자)

[2-3]

아무리 사회환경을 개선하더라도 무장애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손상 그 자체 역시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7자)

[문항카드 3]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세계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지구온난화, 산호, 생태계, 인간 활동, 대멸종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계 각지의 맑고 따뜻한 바다 연안에는 아름다운 산호초들이 분포하고 있다. 산호초는 수백만 개의 산호충들이 군체를 이루어 만들어진 암초를 말한다. 산호충은 사실 말미잘과 같은 촉수를 가진 무척추 해양 동물이다. 산호충들은 촉수를 통해 해양 플랑크톤과 공생조류를 섭취하거나 작은 물고기들을 먹이로 하여 살아가는데, 산호의 아름다운 빛깔은 바로 산호충들이 흡입한 공생조류가 광합성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산호초를 배경으로 전 세계 약 25%의 해양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산호초가 건강한 빛깔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생물종이 전체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산호초의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산호충들이 공생조류를 이전처럼 충분히 품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방출하게 되는데, 이로써 산호초가 점차 빛깔을 잃는 백화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한 만큼 해양으로 녹아드는 양도 증가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는 것도 산호초가 튼튼한 골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로써 다양했던 주변 생물들의 수가 서서히 줄어 임계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전체 생태환경이 붕괴에 이르게 된다. 산호초가 색을 잃어버린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호의 생태환경이 지닌 유기적 연결성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 떠나버린 곳에 남겨진 산호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 지구온난화가 멈추지 않을 경우 산호초의 백화현상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나) 대기가 없었다면 지구는 표면의 평균 온도가 겨우 영하 18℃밖에 되지 않는 차가운 행성이 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기체들이 지구를 감싸 안으며 마치 온실처럼 열을 가두어 지표의 기온을 올리게 된 것이다. 지구의 생태계는 이러한 온실효과에 잘 적응한 결과물이다. 문제는 온실효과 자체가 아니라, 온실의 성능이 더욱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지구온난화라고 부른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기체 중 하나가 이산화탄소이다. 사실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다른 주요 온실기체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의 이산화탄소가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따른 대기의 반응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약 2℃ 이상 높아질 경우 대기의 균형이 깨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전의 기온 상태로 내려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계 각국은 그 심각성을 느끼고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전 지구 평균기온

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2°C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C로도 파국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그 상한을 1.5°C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온실 기체 배출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40년 이전에 지구 기온이 1.5°C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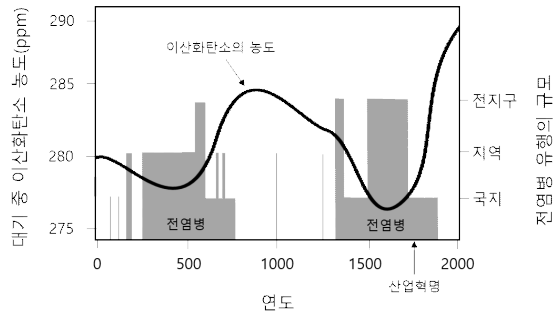
기후시스템의 붕괴가 단지 대기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점에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특히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생물종 중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생존의 위험을 겪고 있거나 이미 멸종된 것들이 존재한다. 생물종의 생존 환경은 각기 다른 한계치를 가지고 있어 지구온난화로 보다 취약한 것들이 낮은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멸종에 이르는 것이다. 지구 생태계가 먹이 사슬과 공생 관계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일부 생물종의 멸종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전체 생태계가 순식간에 갇잡을 수 없는 불균형에 놓이고 결국 대멸종의 재앙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운석 충돌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요인으로 지구 생태계는 이미 ① 다섯 번의 생물 대멸종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정황은 지층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지금처럼 지구 기온의 상승이 멈추지 않고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뒤따라 생태계의 균형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가 될 수 있다. 이로써 끝내 ② 6차 대멸종이 초래된다면 지구의 역사는 이를 인간이 던진 ③ 부메랑으로 기록할 것이다.

[3-1] 윗글에서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서술하시오. (각 60자 이내) [20점]

<보기>

우리는 자연현상에서 종종 프랙탈 구조를 관찰하게 된다. '프랙탈(fractal)'이란 현상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닮은꼴 모양을 말한다. 이처럼 프랙탈은 ㉠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가 전체의 모양을 닮는 구조를 가지며, ㉡ 현상이 변화하는 방식에서도 일부와 전체 간의 유사성을 보인다.

[3-2] 다음 그림에서 ㉠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를 찾아 설명하시오. (130자 이내) [20점]



[3-3] ㉠의 의미를 고려하여 ㉢과 ㉣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은 기후변화가 자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간의 활동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 (가)는 산호의 생태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백화현상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한다. 제시문 (나)는 전 지구 생태환경의 위기를 설명하며 여기에 인간의 활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기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항 3-1은 산호의 생태환경과 전 지구 생태환경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닮았으며 변화의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유사성을 갖는지 묻는다. 3-2에서는 과거 기후분석결과와 역사기록으로부터 인간의 활동과 이산화탄소의 증감이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그래프를 통해 확인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3-3에서는 궁극적인 기후위기를 할 수 있는 6차 대멸종과 관련하여 인간 활동이 지구 생태계의 내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대멸종과 다른 성격이 보인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본 문항은 기후위기에 있어 인간 활동의 본질을 다루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02-01]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시민의 권리에 대해 파악한다.	3-1 3-2 3-3
	성취기준 2	[10통사02-02]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제한한다.	3-3
	과목명: 세계지리		관련
	성취기준 1	[12세지02-01] 기후 요인과 기후 요소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열대 기후의 주요 특징과 요인을 분석한다.	3-1 3-2
	성취기준 2	[12세지08-02]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나 생태 발자국, 가뭄 지수 등의 지표들을 조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한한다.	3-2 3-3
	과목명: 세계사		관련
	성취기준 1	[12세사04-04] 시민 혁명과 국민 국가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산업혁명의 세계사적 의미를 해석한다.	3-2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2사문05-04]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3-2 3-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만델브로트가 들려주는 프랙탈 이야기	배수경	자음과모음	2016	168	제시문	○
'바다의 정글 산호초	한정기 박흥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5	152	제시문	○
THE ANTHROPOGENIC GREENHOUSE ERA BEGAN THOUSANDS OF YEARS AGO	WILLIAM F. RUDDIMAN	Climatic Change	2003	61권 261-293	제시문	○
확 당겨진 온난화 마지노선 '1.5도'...이런 기후 재앙 훨씬 찾아진다	정중훈	중앙일보	2021		제시문	○

5. 문항 해설

[3-1] 이 문항은 기후변화의 과정에 내재된 자연현상의 구조와 변화방식을 추론하도록 한다. 산호초가 다양한 생물종으로 유기적인 구성을 이루는 동시에 산호초의 생태환경은 전 지구 생태환경을 이루는 일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닮은꼴 모양이 나타나는 프랙탈(fractal) 구조가 자연을 구성하는 원리이며, 일부의 기능이 손상됨에도 전체가 붕괴되는 산호의 백화현상은 전 지구 생태계의 붕괴 과정과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

[3-2] 이 문항은 인간의 활동이 어떻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확인하고자 한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기체들 중 이산화탄소가 주목받는 이유는 인간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기후분석을 통해 밝혀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래프는 전염병 확산의 규모가 컸던 시기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감소해 나타났으나, 산업혁명 이후에는 전염병의 확산이 둔화된 데다 활발한 산업 활동이 겹치면서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3-3] 이 문항은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은 기후위기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향후 닥칠지도 모를 6차 대멸종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 다섯 번의 대멸종처럼 생물종들의 멸종이 임계값을 넘어설 때 전체 생태계가 붕괴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과거 지구 생태계의 파도가 운석 충돌과 같은 외부요인이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면, 6차 대멸종은 지구생태계 내부요인인 인간 활동의 결과로부터 그 영향을 되돌려 받는다는 점에서 부메랑으로 비유될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단어(두꺼운 글씨체)를 기준으로 문맥 이해 여부를 평가함 ㉠: 산호초(산호의 생태환경)는 지구 생태계의 일부이면서도 지구 생태계처럼 다양한 생물종으로 구성된다.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적 구성', '먹이사슬', '공생관계' 등도 '다양한 생물종'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정 ㉡: 생물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부 생물종의 감소가 임계점에 도달할 때 급속히 전체가 붕괴된다.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등도 '임계점에 도달할 때'를 설명하는 것으로 인정 	20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단어(두꺼운 글씨체)를 기준으로 문맥 이해 여부를 평가함 전염병으로 인간 활동의 감소(인구 감소)가 있었을 때 이산화탄소의 감소가 있었으며 산업혁명 이후 활발한 산업활동과 함께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난다는 점은 인간의 활동이 이산화탄소의 증감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5점) 	20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단어(두꺼운 글씨체)를 기준으로 문맥 이해 여부를 평가함 ㉠은 외부요인이 일반적으로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되돌려 받는다.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도 '와 달리 -은 되돌려 받는다.'의 대비되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일반적으로'를 언급한 것으로 인정 ㉡은 내부요인(또는 인간)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되돌려 받는다. (5점) 	20

7. 예시 답안

[3-1]

- ㉠: 산호초(산호의 생태환경)는 지구 생태계의 일부이면서도 지구 생태계처럼 다양한 생물종으로 구성된다. (44자)
- ㉡: 생물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부 생물종의 감소가 임계점에 도달할 때 급속히 전체가 붕괴된다. (55자)

[3-2] 전염병으로 인간 활동의 감소(인구 감소)가 있었을 때 이산화탄소의 감소가 있었으며 산업혁명 이후 활발한 산업활동과 함께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난다는 점은 인간의 활동이 이산화탄소의 증감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22자)

[3-3] ㉠은 외부요인이 일반적으로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지만, ㉡은 내부요인에 따른 것으로 궁극적으로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되돌려 받는다. (80자)

[문항카드 4]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4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사회, 통사사회,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오리엔탈리즘, 동아시아, 발전, 벼농사, 마을(공동체), 농업기술, 표준화, 두레, 연공제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배바 등 서구의 오리엔탈리스트들은 동아시아가 동양적인 사고에 갇혀 있으며, 이로 인해 발전할 수 없거나 발전하더라도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는 동양에 없는 서양의 문화적 특성이 서양의 발전과 동양의 정체라는 차이를 만들었다는 생각으로,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적 사고방식이다. 오리엔탈리즘은 본래 '동양학'이나 '동양 취향' 정도의 뜻이었는데, 이후 '동양에 대한 서양의 왜곡과 편견', 나아가 '식민주의적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는 담론 체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오리엔탈리즘 담론이 힘을 지니는 이유는, 그 왜곡과 편견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며, 거기서 벗어나 표현이나 사고를 제어해가기 때문이다. 오리엔탈리즘은 무엇보다도 동양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표현하여 현실을 왜곡시킨다. 이에 의해 동양적인 것이 동양 속 개인이나 집단이 모두 가지는 특성처럼, 그리고 변함이 없이 유지된 강체처럼 여겨진다. 이것이 동양적 특성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의 명명이라면, 이러한 명명 행위는 동양을 전체적이고 영속적인 실체처럼 오인하게 한다. 게다가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적인 것을 서구의 대응물과 대칭 관계에 있지만 그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긴다. 이는 동양 스스로 발전할 힘이 없었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동양의 고유한 발전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동양을 열등하고 정체된 존재로 오인하게끔 한다.

(나) 서구의 침략에 즈음하여 시작된 동아시아의 근대는 서양 규범의 수용을 통해 진행된 국민국가의 건설과정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맨땅 위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으며, 벼농사의 생산양식에 따라 협업 조직과 위계 구조를 발전시켜온 농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달리 말하면, 동아시아의 발전은 동아시아의 벼농사 체제가 남긴 유산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빠른 경제성장은 수천 년을 이어온 논바닥의 협력적 노동 과정에 배태되어 있었던 셈이다.

동아시아 벼농사 체제가 남긴 주요한 유산으로 우선 긴밀한 협업 아래 진행되는 '기술 튜닝' 시스템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 마을 공동체 조직은 세대 간 기술 이전과 세대 내 기술 공유를 통해 고도로 표준화된 농업기술 공동체를 구성했다. 이는 서로 다른 농업과 기술 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자본의 차이를 해소하는 과정이었다. 새로 착안하거나 도입한 농업기술은 이런 세대 간, 세대 내 네트워크 안에서 검증되었으며, 시행착오를 거쳐 마을 전체의 진전된 표준 농업으로 공인되어갔다. 두레와 품앗이는 이렇게 마을 단위에서 공인된 농업이 최종 확인되는 자리였다. 동아시아 마을 공동체의 '기술 튜닝'을 통한 표준화에 대한 집착은 현대의 자본주의 기업으로 이어졌다. 가령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기업은 완벽에 가까운 장인(일본) 혹은 엔지니어링에 기반한 자동화(한국) 시스템을 통해 규칙과 실행 방식을 표준화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낮은 불량률과 재고율을 자랑하는 '조율된' 작업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이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기반이 되었다.

동아시아 벼농사 체제의 또 다른 주요 유산으로 나이에 따른 연공 문화와 이를 기업에 이식시킨 연공제 위주의 노동시장을 들 수 있다. 산업화 시기의 새로운 기업들은 숙련도를 평가할 기준이 없어서 보상 규정의 수립에 곤란을 겪었다. 이 부재의 공간을 채운 것이 벼농사 체제의 연공 문화였다. 이에 의해서 거의 모든 기업은 나이가 들수록 위치를 차지하는 직급 체계, 근무 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오르는 보상 규정을 채택했다. 오래 버틴 자가 더 일을 잘할 것이고, 따라서 오래 버틴 자에게 더 많이 보상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규칙이 세워진 것이다. 어른을 우대하며 그들에게 농사를 배워온 농촌 출신 노동자들은 근무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는 연공제의 원리를 쉽게 수용할 수 있었다. 산업화 세대의 몸과 정신에 새겨져 있었던 농촌의 공동노동 원리에 따라서 기업이 설계되고, 이것이 급속한 산업화의 기틀을 이룬 것이다.

[4-1] (나)의 입장이 어떤 점에서 (가)에 언급된 오리엔탈리즘을 부정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4-2]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입장을 비판하고, (나)가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230자 이내) [40점]

<보기>

- 18, 19세기에 쓰인 기록들을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물론 한 마을 안에도 다양한 농업기술이 공존했음이 확인된다. 가령 기름진 땅은 간격을 벌려서 심고, 메마른 땅은 촘촘하게 심었다. 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같은 작업조차 때로 호미를 쓰고 때로는 고무래로 대신했다. 같은 마을이라도 다양하기 마련인 경작지 환경이나 연도별, 개인별 차이를 꼼꼼히 구별한 결과였다. 특정 기술이 일반적으로 우월할 수는 있다. 그러나 농사란 저마다의 땅에서 자연환경을 상대하는 일이기에, 그 기술이 자신의 농토에서 유효하지 않다면, 일반적인 우위는 쉽게 부정될 수 있었다.
- 기계화 이전 한국 벼농사의 공동노동 원리는 일반적으로 두레를 통해서 설명된다. 두레는 영좌나 좌상이라 불리던, 경험과 능력을 갖춘 농민의 지휘에 따라 일했다. 이들은 대개 나이 많은 농민이지만 꼭 최고령자인 것은 아니며, 나이가 많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두레의 일꾼들은 각자 공동노동에 참여한 시간을 엄격히 계산해 그 결과에 따라 수입을 배분받았다. 간혹 영좌나 좌상에게 능력이나 역할의 차이를 인정해서 한 몫을 더 주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노동시간 외에 나이 등 다른 기준으로 수입 배분에 차등을 두는 일은 없었다.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전근대·근대·현대의 사회조직과 사회변동, 그리고 동양-서양 간 및 전통-현대 간의 문화적 차이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 정도 및 응용적인 적용 능력을 함께 측정하려는 의도로 출제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및 근현대의 한국사, 전통 및 현대의 사회·문화, 근대 및 현대의 경제와 사회조직 등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개념들을 자신의 것으로 활용하는 능력, 실증적 사실에 근거하여 특정한 이론적 주장을 비판하는 능력 등, 대학 학업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로 염두에 둔 점은, 수험생들이 익숙한 (상대일 것이라고 기대되는) 개념들을 새로운 역사적 혹은 이론적 배경에서 조망했을 때 새로운 학술적 혹은 실천적 함의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수험생과 공유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제시문에서 식재해도 무방했던 '배바'를 글머리에 남겨둔 것은, 교과서 (및 근대적인 사회사상) 전체를 통틀어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 전근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베버의 논점 자체를 의심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점,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든 의심하든 이 사고는 실증적 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현실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방식의 출제를 통해, 도그마와 같은 인식에 갇혀서 암기하는 사회문화의 학습이 아니라, 도그마적인 인식을 부수며 활발히 응용하는 사회문화의 학습 능력이 바로 우리 대학이 요구하고 또 양성하려는 인재의 자질이라는 점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독서, 사회, 통합사회,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가) (나) 4-1, 4-2
	성취기준 2 [9사(지리)04-01] 다양한 기준으로 문화지역을 구분해 보고, 지역별로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지역의 자연환경, 경제·사회적 환경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제시문 (가) (나) 4-1, 4-2
	성취기준 3 [10통사07-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제시문 (가) (나) 4-1, 4-2
성취기준 4 [12사문05-01]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비교하고 사회 운동이 사회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시문 (가) (나) 4-1, 4-2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	교보문고	1991	127-128	제시문 (가)	○
	쌀, 재난, 국가: 한국인은 어떻게 불평등해졌는가	이철승	문학과지성사	2021	32-35, 47-69, 149-152, 139-163, 289-290, 342	제시문 (나)	○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먼저 오리엔탈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 적고, 이어서 그것이 현실과 다른 것을 현실인 것처럼 왜곡할 뿐 아니라 그와 다른 생각을 통제하게 되기도 하는 문제점을 다시 둘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하나는 동아시아를 한덩어리로 묶어서 전체적이고 영속적인 실체처럼 왜곡한다는 점,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를 열등한 존재로 여기며 고유한 발전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오해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제시문 (나)는 동아시아가 서구에 없는 벼농사 체제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면서, 이를 가능하게끔 만든 벼농사 체제의 유산으로 기술 표준화

(혹은 '기술 튜닝') 시스템과 연공제 문화를 거론한다. 전자는 마을 단위로 표준화된 벼농사 기공노동을 통해 확립되었다는 것이고, 후자는 나이가 들수록 뒷자리를 차지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연공 문화가 벼농사 체제 공동노동의 원리였고 동아시아의 기업은 이를 받아들여 기업조직의 원리로 삼았다는 것이다.

[4-1] 이 문항은 제시문 (가)에 제시된 오리엔탈리즘의 두 가지 문제점(현실을 왜곡한 점) 중 어떤 것이 제시문 (나)에 의해 부정될 수 있는지 적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제시문 (나)는 서구에 없었던 벼농사 체제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사회가 독자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중 첫 번째 측면, 즉 동아시아에는 고유한 발전 가능성이 없었다는 오리엔탈리즘적 인식이 제시문 (나)에 의해 부정될 수 있다.

[4-2] 이 문항은 우선 <보기>에 적힌 마을 내 농업기술의 다양성과 공동노동의 운영방식에 대한 사실 설명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를 어떤 점에서 사실의 차원에서 비판할 수 있는지 서술하게 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제시문 (가)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문제점과 연결함으로써, 간단하지만 이론적인 명제를 진술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제시문 (나)가 어떤 측면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 성공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의 문제점을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양면적인 인식이 가능한지를 측정하려는 것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각 구성요소를 정확하게 적으면 각기 10점을 부여한다. • 첫 번째 구성요소는 동아시아에 고유한 발전 경로 또는 방식이 있었다는 점(혹은 벼농사 체제에 바탕을 두고 동아시아가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을 적는 것이다. • 두 번째 구성요소는 그에 의해 부정되는 오리엔탈리즘적 사고의 내용, 즉 동아시아(혹은 동양의) 고유한 발전 가능성을 부정하는 오리엔탈리즘의 문제점을 정확히 적는 것이다. • 예시 답안의 구성요소를 채웠지만 답안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예시 답안의 구성요소에 관한 서술 자체가 부족하거나, 구성요소를 채웠지만 부적절한 서술 혹은 비문 등이 포함된 경우, 출제자가 제시한 세부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자가 적절히 감점한다. 	20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첫째와 둘째 구성요소를 정확하게 적으면 각 10점씩, 세 번째 구성요소를 정확하게 적으면 20점을 부여한다. • 첫 번째 구성요소는 한 마을에도 다양한 농업기술이 공존할 수 있었으므로 기술 표준화에 관한 제시문 (나)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정확히 적는 것이다. • 두 번째 구성요소는 두레에 나이에 따른 지휘구조나 보상체계가 없으므로 벼농사 공동노동(혹은 연공 문화, 혹은 연공제의 기원)에 관한 제시문 (나)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정확히 적는 것이다. • 세 번째 구성요소는 ①동아시아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취급하고, ②잘못된 인식을 마치 현실처럼 인식하는 점에서, 제시문 (나)도 오리엔탈리즘의 문제점을 공유한다는 점을 정확히 적는 것이다. • 세 번째 구성요소에서 ①과 ② 중 어느 하나만을 적는 경우를 포함하여, 예시 답안의 구성요소를 채웠지만 답안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예시 답안의 구성요소에 관한 서술 자체가 부족하거나, 구성요소를 채웠지만 부적절한 서술 혹은 비문 등이 포함된 경우, 출제자가 제시한 세부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자가 적절히 감점한다. 	40

7. 예시 답안

【4-1】

동아시아는 서구에 없는 벼농사 체제의 유산을 토대로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동양에 고유한 발전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오리엔탈리즘의 사고가 (나)에 의해 부정된다.

【4-2】

(나)는 마을을 단위로 기술이 표준화된다고 했지만 같은 마을에도 다양한 농업기술이 공존했다. 또 벼농사 공동노동이 연공제의 기원이라고 했지만 두레에는 나이에 따른 지휘구조나 보상체계가 없었다. 따라서 동아시아를 한 덩어리로 묶어 벼농사 체제라고 명명하고, 현실과 다른 그 명명이 (전체적이고 영속적인) 실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점에서 (나)는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을 드러낸다.

【문항카드 5】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5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인과관계, 규칙성, 반사실적 조건문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은 인과 관계를 두 사건 사이의 '필연적 연결'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원인 안에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내밀한 힘' 같은 것이 있어서 원인이 결과가 발생하도록 필연적으로 '추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나는 그런 신비로운 힘 같은 것은 보지 못하겠다. 인과 관계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라고는 한 사건이 발생하고 다른 사건이 뒤이어 발생한다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공이 정지해 있는 다른 공과 부딪쳐 두 번째 공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자.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그저 공 하나가 굴러와서 다른 공과 접촉한 뒤 두 번째 공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과의 관념은 필연적 연결의 관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과 관계를 필연적 연결이 아닌 규칙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건 A가 사건 B를 야기한다는 것은 A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 B와 유사한 사건이 그것을 뒤따른다는 것에 다를 아니다.

(나) 일반적으로 흡연을 한 사람들 중 소수만이 폐암에 걸리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고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 규칙성의 존재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것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과 관계는 어떻게 분석되어야 할까? 사건 A가 다른 사건 B를 야기했다는 것은 "만약 A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B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이런 조건문은 실제로는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반사실적 조건문'이라고 불리는데,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은 이를 '가능 세계' 개념을 통해 분석한다. "만약 A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B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가 참인지 보기 위해서, A의 발생 시점 직전까지는 현실 세계와 동일하지만 A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만 현실 세계와 달라지는 가능 세계를 상정한다. 이 가능 세계가 자연법칙에 따라 흘러갔을 때 B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위의 반사실적 조건문은 참이다. 예를 들어, "내가 발을 잘못 디뎠다면 나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을 것이다."는, 내가 발을 잘못 디뎠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와 다르지만, 자연법칙이나 계단의 위치 등 다른 모든 점에서는 현실 세계와 유사한 가능 세계에서 나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다) 반사실적 조건문에 의한 인과 분석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갑과 을은 돌멩이를 던져 앞에 있는 빈 병을 깨뜨리는 놀이를 하고 있다. 누구든 돌멩이를 던져 먼저 빈 병을 깨뜨리는 사람이 승자이다.

두 사람은 앞다퉀 평바닥에서 돌맹이를 집어 들어 병을 향해 던진다. 갑자기 던진 돌맹이가 먼저 빈 병에 도달하여 병은 산산조각이 나고, 을이 던진 돌맹이가 0.5초 후에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 병은 이미 깨진 상태였다. 이 경우 당연히 갑이 돌맹이를 던진 것이 병이 깨진 것의 원인이다. 그러나 ㉠ 반사실적 조건문에 의한 인과 분석을 따를 경우 둘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는 귀결에 이르게 된다. 갑이 그 순간 돌맹이를 던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0.5초 뒤에 을이 던진 돌맹이에 맞아 병이 깨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반사실적 조건문이 성립하는 것은 인과 관계가 있음의 (㉡)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반사실적 조건문에 의한 인과 분석은 인과 관계에 대한 옳은 분석이 될 수 없다. 규칙성 이론의 경우에도 사정이 낫지 않다. 을이 돌맹이를 던진 것과 병이 깨진 것 사이에 규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인과 관계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규칙성의 존재가 인과 관계가 있음의 (㉢)이 아님을 보여준다. 결국 인과 관계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발생시키는 '필연적 연결'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5-1] <보기>의 ㉡와 ㉢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와 (나)는 각각 어떻게 판단할지 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170자 이내) [30점]

<보기>

두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삼의 공통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온도계의 눈금이 0℃ 밑을 가리킨 직후에 항상 얼음이 어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 냉동실에 얼음이 언 것도 냉동실에 달린 온도계의 눈금이 0℃ 밑을 가리킨 탓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실제로 ㉡ 냉동실의 온도계 눈금과 ㉢ 냉동실에 얼음이 어는 것 사이에 인과 관계는 없으며, 둘 모두 냉동실의 실제 온도가 낮은 것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다.

[5-2] <보기>의 관점에서 ㉡을 반박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보기>

내일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오늘 내가 살해한다고 하자.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차피 죽었을 것이니까 나에게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문제는 시간이다. 다른 시간에 발생하는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사람은 하루 뒤에 어차피 죽을 것이었으나, 나로 인해 맞이하게 된 죽음은 그것과는 다른 죽음이다.

[5-3] <보기>를 참조하여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0점]

<보기>

- X가 성립하면 Y가 성립할 때, X는 Y의 '충분조건'이라고 한다.
- X가 성립하지 않으면 Y가 성립하지 않을 때, X는 Y의 '필요조건'이라고 한다.

3. 출제 의도

인과관계는 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과학, 사회, 국어 등 여러 맥락에서 등장한다. 본 문항은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간략히 소개된 인과관계에 대한 견해를

소재로 삼아 학생들이 추상적인 주제에 대한 글을 분석적 읽고 이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은 인과관계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반례를 통해 비판하고, 반례를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는 경험론 철학자 데이비드 흄(1711~1776)의 유명한 인과관계에 대한 지문인데, 흄은 인과에 대한 상식적인 견해를 비판하면서 인과관계는 규칙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흄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인과관계는 반사실적 조건문에 의해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앞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뒤의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는 이 견해에 대한 반례를 들어 이 견해를 비판하면서 상식적 견해를 옹호한다.

각 문항은 인과관계에 대한 일상적인 지식 외에 어떠한 지식도 요구하지 않지만, 단순히 읽은 것을 수동적으로 이해해서는 풀 수 없고 적극적으로 분석적인 자세로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5-1은 제시문에서 제시된 추상적인 견해를 일상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5-2는 단서를 주고서 이 단서로부터 제시문에 나오는 견해에 대한 비판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5-3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충실히 학습했다면 알고 있을 '충분조건' 및 '필요조건'의 개념을 이용해 제시문의 논리를 적절히 파악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5-1 5-2 5-3
성취기준 2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체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5-1 5-2 5-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i>Enquiries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nd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i>	David Hume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29-30	제시문(가)	○
	인과	김동현 외	서광사	2020	55-79	제시문(나), (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19	132	제시문(가)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19	138	제시문(가)	○

5. 문항 해설

제시문은 (가)는 <윤리와 사상>에 언급된 18세기 영국 철학자 데이비드 흄의 인과관에 대한 글이다. 경험론자였던 흄은 인과관계에서 결과를 발생시키는 '내밀한 힘' 같은 것은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인과는 단순히 '규칙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나)는 반례를 들어 이 견해를 비판한다. 휴연과 폐암 사이에 규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규칙성 견해에 반례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나)는 인과관계를 '반사실적 조건문'으로 분석하는 견해를 제안한다.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을 야기했다는 것은,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두 번째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는 다시 이 견해를 반례를 들어 비판한다. 같은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두 사건이 거의 같은 시간에 벌어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만이 원인이 되는 경우, 실제 원인이 된 사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 의해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에 반사실적 조건문 견해는 이런 사례를 제대로 판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핵심 이유이다.

문항 5-1은 (가)와 (나)에 제시된 견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항이다. <보기>의 사례는 얼핏 보기에 두 사건(온도계의 눈금과 얼음이 아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두 사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둘의 공통 원인(온도가 낮은 것)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온도계의 눈금이 0℃ 밑을 가리키는 것과 얼음이 어는 것 사이에 규칙성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가)는 둘 사이에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것이다. 반면 (나)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올바르게) 판정할 텐데, 온도계의 눈금이 (모종의 이유로) 0℃ 밑을 가리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온도는 여전히 낮았을 것이고 따라서 얼음은 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둘 사이에는 반사실적 조건문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항 5-2는 <보기>에 나타는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다)에서 제시된 (나)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재비판을 구성하는 문항이다. <보기>는 다른 사건에 일어나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만약에 갑이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을이 던진 돌멩이에 의해서 병이 깨지기는 했을 테지만, 이는 0.5초 후에 일어날 사건이므로 (<보기>의 견해에 따르면) 애초에 갑의 돌멩이에 의해서 병이 깨진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다. 따라서 갑이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갑의 돌멩이에 의해 병이 깨지는 바로 그 시간에 병이 깨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반사실적 조건문이 성립하며 따라서 (나)의 견해는 이 사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문항 5-3은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의 개념을 가지고 제시문에 제시된 논리를 파악해 보도록 하였다. ㉠의 경우, 반사실적 조건문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사례이므로, 이는 반사실적 조건문이 성립하는 것이 인과관계가 있음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의 경우는 반대로 규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는 없는 사례이므로, 이는 규칙성이 있음이 인과관계가 있음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점기준: 각각에 대해서, (i) 올바른 근거에 기반해서, (ii) 맞는 답을 내리고, (3) 적절히 서술했느냐에 따라서 채점 ▶ (5-1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사이에 규칙성이 있음을 근거로 (가)는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진술한 경우 15점 - 규칙성 대신에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의 다른 사항을 근거로 삼은 경우, 10점 감점 - 규칙성은 언급했으나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로 잘못 파악하거나 판단을 적지 않은 경우, 10점 감점 - 답안을 기준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5점 감점. ▶ (5-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도계의 눈금이 0 밑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이른 시점에 발생한 실제 온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얼음이 얼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나)는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진술한 경우 15점 - 추가적인 설명 없이 "온도계의 눈금이 0 밑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얼음이 얼었을 것이다"라는 것만 근거로 삼았을 경우, 5점 감점 -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한 이해 없이, 가능 세계만 언급하는 등의 부적절한 근거를 들 경우 10점 감점 - 근거는 제대로 지적했으나, 답을 틀리게 내린 경우, 10점 감점 - 답안을 기준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5점 감점 	30 (각15점)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갑에 의한 병 깨짐과 을에 의한 병 깨짐이 다른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임을 이해했는지와, (ii) 이것이 인과 관계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적절히 서술했느냐에 따라 채점 - 둘의 시간 차 때문에 다른 사건이라는 것만 지적한 경우, 10점 감점 - 답안을 기준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5점 감점 	20
5-3	▶ 부분 점수 없이 두 가지를 모두 바르게 파악했느냐에 따라 채점	10

7. 예시 답안

[5-1]

둘 사이에 규칙성이 있으므로 (가)는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온도계의 눈금이 0 밑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이른 시점에 발생한 실제 온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얼음이 얼었을 것이므로, (나)는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5-2]

갑이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병이 깨진 시간에 병이 깨지는 않았을 것이다. 0.5초 후에 을이 던진 돌멩이에 의해 병이 깨지는 사건은 이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다.

[5-3]

㉠: 필요조건, ㉡: 충분조건

[문항카드 6]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6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분배적 정의, 차등의 원칙, 불평등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불평등한 분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어야 한다. 어떤 사회가 최대 수혜자와 최소 수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회에서 가능한 분배 상태는 <표>와 같이 최초의 평등한 분배 상태(A)와 일련의 불평등한 분배 상태(B~G)밖에 없다고 가정하자. 이때 모든 사람이 최초의 평등한 상태보다 처지가 더 나아진다면 불평등한 분배가 정당화될 수 있다. 만약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어떤 사람은 이익을 얻지만 다른 사람은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다면 그러한 불평등한 분배보다는 최초의 평등한 분배가 더 바람직하다.

<표> 분배 상태별 최대 수혜자와 최소 수혜자의 이익

분배 상태	A	B	C	D	E	F	G
최대 수혜자	10	20	30	40	50	60	70
최소 수혜자	10	18	24	28	30	26	14

그런데 최초의 평등한 분배 상태와 비교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한 분배 상태는 여럿이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어떤 분배 상태가 바람직한가? '효율성의 원칙'은 효율적인 상태를 최적이라고 본다. 효율적인 상태란 어떤 분배 상태를 변경할 때 일부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어떤 분배 상태를 변경하여 일부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분배 상태는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데 효율적인 분배 상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어서 그것들 간의 우열을 따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노예 제도가 효율적일 수 있다. ㉠ 노예 해방을 통해 주인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노예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없으므로 기존의 노예 제도는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효율성의 원칙은 정의의 원칙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정의의 원칙은 불평등의 정당성을 판단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이 적절하다. 차등의 원칙은 선천적 재능, 타고난 계층, 가정환경 등에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최대 수혜자가 아니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서 보호 무역을 폐지하고 자유 무역을 시행할 경우에 그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은 손해를 보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이익을 얻는다면 자유 무역은 정당한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주어지도록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불평등을 통해 최소 수혜자가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바람직한 것이며, 최소 수혜자가 최대의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데 차등의 원칙은 과도하게 불평등한 상태는 정의롭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바람직한 분배가 아니라고 여긴다.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얻는 분배 상태보다 불평등이 더 심해지면 이는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표>의 여러 분배 상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회 체제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극대화된 분배 상태이다. 이 분배 상태에서는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둘째,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는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증가시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도 증가하게 되고,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감소시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도 감소하게 되는 분배 상태이다. 이 분배 상태에서는 아직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최대가 된 것은 아니다. 셋째, '정의롭지 못한 체제'는 최대 수혜자의 이익이 최소 수혜자의 이익에 비해 과도하여 불평등이 심한 분배 상태이다. 이 분배 상태에서는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증가시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감소하게 되고,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감소시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증가하게 된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약자인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평등주의적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시기심에 의거하여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으로,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평등한 상태를 추구한다. 그런데 차등의 원칙은 사람들이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즉 타인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 증진에만 관심을 두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평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6-1] '차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에 대해 평가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70자 이내) [20점]

[6-2] <보기>의 진술 중 윗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 ①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표>의 G에서 F로의 변화는 허용된다.
- ② 시기심을 지닌 최소 수혜자는 <표>의 E보다 D를 더 좋아한다.
- ③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와 최대 수혜자의 이익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④ <표>에서 효율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분배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⑤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표>의 C는 '정의롭지 못한 체제'로 F는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로 분류된다.

[6-3] '차등의 원칙'의 입장에서 <보기>의 ㉡가 지닌 문제점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130자 이내) [20점]

<보기>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총 이익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총 이익이 증가하면 좋은 것으로 그것이 감소하면 나쁜 것으로 간주한다. ㉡ 사회의 총 이익이 증가하면 사회 구성원에게 좋은 것이므로 공리주의는 분배 이론으로서 바람직하다.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분배적 정의와 관련하여 롤스(J. Rawls)의 '차등의 원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 사회는 빈부 격차의 심화, 사회의 양극화, 계층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실천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렇다면 재화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분배해야 하는가? 능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사회적 가치를 평등하게 분배해야 하는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사회적 가치를 분배해야 하는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분배해야 하는가?

그런데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인 롤스는 능력주의나 평등주의, 공리주의와 같은 분배 방식을 비판하면서 '차등의 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을 주장한다. 차등의 원칙은 평등주의적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불평등한 분배도 허용한다.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중시하여 불평등한 분배를 통해 최소 수혜자가 이익을 얻는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최소 수혜자와 최대 수혜자의 이익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불평등이 과도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얻는 분배 상태보다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이러한 분배적 정의는 <생활과 윤리>를 비롯한 중등교육과정에서 사회 정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윤리적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문항은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대한 주장을 제시문으로 소개한 후에 이와 관련하여 제시문에 나타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이해 능력, 특정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논리적, 비판적 사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고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생활과 윤리	
	성취기준 1	[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관련 제시문 및 문항 6-1, 6-2, 6-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20	90-93	제시문	○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비상교육	2020	91-94	제시문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20	94-97	제시문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90-93	제시문	○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금성출판사	2020	91-94	제시문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정의론	롤스(황경식 역)	이학사	2006	111-128	제시문	○

5. 문항 해설

제시문은 롤스(J. Rawls)의 『정의론』,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은 분배적 정의와 관련하여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효율성의 원칙'과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항 6-1은 차등의 원칙이 노예 해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를 서술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전체적인 맥락에서 개념이나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적용 및 응용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문항 6-2는 제시문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선택하라는 것으로 내용에 대한 분석과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문항 6-3은 차등의 원칙의 입장에서 <보기>의 주장을 비판하라는 것으로 비판적 사고 및 응용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6-1] 이 문항은 '차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노예 해방에 대해 평가하고 그 이유를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본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의 입장은 노예 해방을 통해 비록 주인의 이익은 감소하지만 최소 수혜자인 노예의 이익은 증가하므로 그러한 노예 해방은 정의로운 것이다.

[6-2] 이 문항은 제시문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에서 언급한 차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시기심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면 된다.

①의 진술은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표>의 G에서 F로의 변화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표>의 G에서 F로 변화하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14에서 26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차등의 원칙은 이러한 변화를 허용한다. 그러므로 이 진술은 제시문의 입장과 부합한다.

②의 진술은 “시기심을 지닌 최소 수혜자는 <표>의 E보다 D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시기심을 지닌 사람은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평등한 상태를 추구한다. <표>에서 E와 D의 분배 상태를 비교하면, 최소 수혜자는 이익이 30(E)에서 28(D)로 감소하여 손해를 보지만 최소 수혜자와 최대 수혜자의 이익의 격차, 즉 불평등은 20(E)에서 12(D)로 줄어들어 좀 더 평등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시기심을 지닌 최소 수혜자는 E보다 D를 더 좋아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진술은 제시문의 입장과 부합한다.

③의 진술은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와 최대 수혜자의 이익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최소 수혜자와 최대 수혜자의 이익의 격차(불평등)가 커지는 것을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한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이 양자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제시문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④의 진술은 “<표>에서 효율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분배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효율성의 원칙’은 어떤 분배 상태를 변경할 때 일부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표>에서 효율성의 원칙을 충족시켜 주는 분배 상태는 E, F, G이다. E, F, G 각각의 분배 상태에서는 최대 수혜자나 최소 수혜자가 이익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줄 수밖에 없으므로 각각의 분배 상태는 효율적이다. 그리고 차등의 원칙을 충족시켜 주는 분배 상태는 E이다. E 분배 상태에서 최소 수혜자는 최대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효율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분배 상태는 E이다. 그러므로 효율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분배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제시문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⑤의 진술은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표>의 C는 ‘정의롭지 못한 체제’로 F는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분배 상태 C에서는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증가시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도 증가하고,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감소시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도 감소하기 때문에 분배 상태 C는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로 분류된다. 반면에 분배 상태 F에서는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증가시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감소하고,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10만큼 감소시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증가하기 때문에 분배 상태 F는 ‘정의롭지 못한 체제’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C는 ‘정의롭지 못한 체제’이며 F는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라는 진술은 제시문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6-3] 이 문항은 ‘차등의 원칙’의 입장에서 <보기>에 나타난 “사회의 총 이익이 증가하면 사회 구성원에게 좋은 것이므로 공리주의는 분배 이론으로서 바람직하다.”는 견해의 문제점을 두 가지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 증가를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만 과도한 불평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차등의 원칙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의 총 이익의 증가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공리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사회의 총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최대 수혜자의 이익만 증가하고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사회의 총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증가하지만 최대 수혜자의 이익 증가가 훨씬 커서 불평등이 과도해질 수 있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의 입장에서 공리주의가 분배 이론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p>▶ ‘차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에 대해 평가하면서 그 이유를 서술함. <답안> “노예 해방을 통해 주인의 이익은 감소하지만 최소 수혜자인 노예의 이익은 증가하므로 노예 해방은 정의로운 것이다.”(20점) - “노예 해방을 통해 주인의 이익은 감소하지만 노예(최소 수혜자, 사회적 약자)의 이익은 증가한다.”는 내용(이유)을 서술한 경우(10점) - “노예 해방은 정의롭다(정당하다).”는 내용(평가)을 서술한 경우(10점) - 답안을 기준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6-2	<p>▶ <보기>에서 부합하지 않는 것을 모두 선택했는지를 평가함. <답안>: ③, ④, ⑤ (20점) - 정답 개수에서 오답 개수를 뺀 합산 개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정답 개수 - 오답 개수 = 합산 개수) 합산 개수: 0개 (0점), 1개 (5점), 2개 (10점), 3개 (20점) (예) ①, ④, ⑤ → 합산 개수 1개 (5점) ②, ③, ④, ⑤ → 합산 개수 2개 (10점) ①, ②, ③, ④ → 합산 개수 0개 (0점)</p>	20
6-3	<p>▶ ‘차등의 원칙’의 입장에서 <보기> ㉠의 문제점을 두 가지 서술했는지를 평가함. <답안> “사회의 총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거나,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증가하지만 최대 수혜자의 이익 증가가 훨씬 커서 불평등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공리주의는 문제가 있다.”(20점) - “사회의 총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최소 수혜자(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10점) - “최소 수혜자(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증가하지만 최대 수혜자의 이익 증가가 훨씬 커서 불평등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10점) - 답안을 기준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7. 예시 답안

[6-1] 노예 해방을 통해 주인의 이익은 감소하지만 최소 수혜자인 노예의 이익은 증가하므로 노예 해방은 정의로운 것이다.

[6-2] ③, ④, ⑤

[6-3] 사회의 총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거나,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증가하지만 최대 수혜자의 이익 증가가 훨씬 커서 불평등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공리주의는 문제가 있다.